

장려상 · 박유미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의 경험에 새로운 질문을 더하다

12년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살이었던 그 아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 표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린이집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컵으로 물 먹는 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또래보다 말이 늦을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컸지만,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공부

그 무렵 저는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상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발달정신병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등의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를 배우면서 ‘관찰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를 배우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에게는 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려상 · 박유미

가정과 함께 아이를 이해하고 돕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왜 못할까?’라는 생각 대신 ‘무엇이 어려운 걸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가 아니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의 현재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가정에서의 생활과 어린이집에서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작은 변화라도 서로 공유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늘어났고, 생활습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이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더 일찍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지만, 사실 그 아이는 저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 주는 어른이 필요하며,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장려상 · 박유미

경험에 전문지식을 더하다

1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쌓은 현장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션나노디그리 과정은 그 경험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새로운 눈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동상담을 배우기 전에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격이나 수료증 하나를 더 갖게 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린이집을 졸업했지만 지금도 그 아이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만날 때도 멀리서 뛰어와 “선생님”이라며 안아줍니다. 어린이집을 떠난 뒤에도 아이의 소식을 들을 때면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릅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작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 아이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1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느낀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교사로

앞으로도 저는 아이의 행동을 빨리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자, 12년의 현장 경험을 다시 바라보게 한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빨리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믿고 이해하며 기다려 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아동상담전문가이자 교사의 모습입니다.